

목사님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김광년_신내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중경회장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교회를 건축하며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건축을 앞두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소리 높여 응원의 함성을 올려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신내 감리교회를 섬기는 김광년 목사입니다. 신내교회는 지난 2019년 연말 약 1년 10개월 동안의 교회 건축 공사를 마치고 새 예배당에 입당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다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 아쉽지만 영상예배를 드리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였습니다. 다행히 금년 4월부터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해져서 지금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며 가졌던 무수한 고민과 상상들,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속에 있었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나누고 싶던 차에 새가정 편집부로부터 ‘교회 건축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우리 신내교회의 건축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축을 준비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누는 고백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우리 신내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2004년 전임 목회지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가장 어려웠던 일은 ‘교인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를 찾아온 원로 장로님들이 제게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자’고 하였더니 원로장로 중 한분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하지 마시고 계산해 보시고 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결단하고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건축이 끝날 무렵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교회 건축비의 두 세배나 되는 엄청난 건물을 기증받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임 목회지 건축과정 중에 생긴 일이라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넘기고 봉헌예배를 드리던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성전건축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 벅찬 감동에 무심코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9년 전 지금 목회하는 신내교회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지역 재개발로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임을 알게 되었을 때,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임해 보니 준비된 건축 자금은 전혀 없었고, 보상금만으로는 엄두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많은 교인들은 담임목사가 대책도 없이(?) 믿음으로 할까 걱정하는 눈빛이었고 “제발 믿음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계산해 보고 하세요” 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을 메뚜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선포할 것인지 결단해야 했습니다.

‘교회 건축’ 보다 더 중요한 일은 ‘믿음 건축’이었습니다. 김광년